

아르센 뤼팡의 귀환

Le Retour d'Arsène Lupin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20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7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e Retour d'Arsène Lupin » (1920)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e Retour d'Arsène Lupin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7

번역 정책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웁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
시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에게 아르센 뤼팽의 미공개 희곡 한 장면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프랑시스 드 크루와 모리스 르블랑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 작품은 바로 그 희곡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장면은 처음에는 무대에 올려지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후 파리 극장이 대성공을 거두며 재개봉한 희곡의 서막을 이룬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한 장면의 강렬함은 오히려 뒤이은 전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다. 이 위대한 서막과 조르주와 땡드레지 사이의 감동적이고 날카로운 장면은, 이야기 시작부터 뤼팽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시스 드 크루와와 모리스 르블랑은, 뛰어난 배우 안드레 브를레와 당시 아테네 극장 단장이었던 아벨 드발과 상의했다. 그들은 대본을 다시 짜기로 결심했고, 이 한 장면을 과감히 버렸다.

작가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 옳았다. 전 세계적 성공이 그들의 노력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 작품을 소개해 주는 데 감사할 것이다. 이 장치는 단편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 장르에서 걸작으로 남을 것이다.

이 장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를 두 번에 나누어 연재한다. 두 번째 부분은 다음 호에 실릴 예정이다.

조르주 샤당-제로 오의 집. 매우 우아한 연회장. 책들과 그림들, 사냥 전리품들이 놓여 있었다. 인도 여행의 생생한 추억들(동상 코끼리, 부처상 등)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브리자유가 들어왔다.

“주인이 돌아오셨습니까?”

알베르. “네, 선생님. 주인께서 여덟 날 전에 돌아오셨습니다.”

브리자유. “주인이 인도에서 여덟 날 전에 돌아왔다는 건 나도 잘 안다. 내가 묻는 건 그가 파리에 돌아왔는지 따위가 아니다. 내가 묻는 건 그가 지금 집에 있는지다.”

알베르. “아, 네, 선생님. 주인께서 집에 계십니다. 누구라고 알릴까요?”

브리자유. “물론 그의 친구, 브리자유 씨지. 너는 새로 온 하인인가?”

알베르. “네, 선생님. 그제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자유. — 아, 잠깐. 샤당-제로 부인이 신랑감이나 약혼녀와 함께 계시다면 건드리지 마시오. 나중에 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침을 먹습니다.

알베르. — 신사는 의사와 함께 계십니다, 각하.

브자유. — 의사와? 아픈가 보군요.

알베르. — 신사는 오늘 밤에 어지러움을 겪으셨습니다.

브자유. — 심각한 건 아니겠지?

알베르. — 오, 아닙니다, 각하.

브리자유. — 자, 보자. 여기 뭐가 바뀌었지? 어, 이건 새롭군. 정말 예쁘다. 부처상이라니. (사진 한 장을 발견하며.) 어! 드브르메니의 그 소녀, 곧 샹동-제로 부인이 될 분으로군. 안녕! 정말 매력적이야, 미스. 가문이 좋잖아. 대사관의 딸이고 춤도 아주 잘 춘다. 나까지 너에게 한 때 반했었지. 너는 착실한 청년, 대사관 서기랑 결혼한다니. 공화국적인 귀족, 우리 같은 중산층과 귀족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집안이지. 게다가 재산도 많고! 정말로 난 너에게 반했었어. 함께 보스턴 춤을 얼마나 많이 추었는지 모른다.

조르주가 들어온다. — 브리자유! 넌 거기서 뭐 해?

브리자유. — 네 약혼녀와 flirting 중이었어. 오랜만이라 반갑고, 축하해, 친구.

조르주. “응, 거기서 결정됐어. 뭄바이에서야. 정말 기쁘네. 아주 기쁘다고. 어차피 너도 그녀를 알고 있잖아.”

브리자유. “우리가 일곱 살 때부터 알고 지냈지.”

조르주. “우리’라니, 참 좋네! 다행히 머리카락은 온전히 남아 있군, 감사하게도. 그런데 말이야,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점심 먹으러 오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려고?”

브리자유. “아니야. 너랑 수다 떨고 싶어서 서둘렀어. 넌 열다섯 달 동안이나 안 봤잖아. 얼굴이 정말 좋아. 건강해 보여.”

조르주. “건강하지? 난 한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

브리자유. “뭐라고? 방금 전엔 의사랑 함께 있던 거 아니었어?”

조르주. “아, 그렇구나. 아니야, 친구야. 난 의사랑 함께 있지 않았어. 그건 게르샤르의 비서였지.”

브리자유. “슈레티 형사 게르샤르? 혹시 아르센 뤼팽이 찾아온 적은 없나?”

조르주. “뤼팽이 지름길로 한 반지 도난 사건 때문에 나를 찾아오진 않을 걸세. 도난당한 건 반지 하나뿐이었지만… 나는 그 반지에 각별한 애정을 두고 있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봐.”

알베르. “전화 나왔습니다.”

조르주. “다브르메니유 씨인가?”

알베르. “아닙니다, 선생님. 가버넌트입니다.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조르주. “좋소. 괜찮소?”

전화기 너머로 “알로? 크리스노프小姐인가? …네, 네, 나 맞소. …제르맹이 올 거라고? …네, 알겠소. 기다리고 있소. 안녕히 계십시오, 크리스노프小姐!”

조르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가버넌트도 참으로 매력적이군.”

브리자유. “당연하지.”

“조르주.”

“제르맹과 제가 오늘 아침에 함께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시간이나 서로 보지 못했네요. 시간이 정말 길어요.”

“브리자유.”

“보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나 봐요.”

“브리자유, 너 정말 무례하구나, 내 친구. 알로, 네, 저예요. 잘 지내? 응, 아주 잘 지내. 말 타느라 피곤하지는 않아? 뭐라고?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하러 올까? 무슨 질문이야. 차 한 잔 하러 먼저 들리게. 뭐라고? 응. 아, 응, 사랑해. 아니, 안 돼. 누군가 있거든.”

“브리자유.”

“알아, 내 친구. 내 방해가 되는 건가?”

“조르주.”

“응, 여자야. 아주 예쁜 여자. 전화기를 돌려줄게. 가서 한 마디 해 봐.”

브리자유가 두 개의 수신기를 집어 들고 목소리를 바꾼다.

“당신의 약혼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스.”

그가 웃었다.

“알로! 내가 누구냐고? 자크 드 브리자유… 알로! 15일에 춤을 추고 싶냐고요?… 기꺼이 하죠… 흰색 파티라니?… 기꺼이 하죠… 축하합니다, 잘 아시죠… 당신은 돌처럼 불행해질 거예요… 하지만 축하합니다.”

조르주.

“자네, 좀 들어보게.”

브리자유.

“당신 아버지께 안부 전하세요… 네, 내일 차 마시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수신기 하나를 조르주에게 건넨다.) 정말 매력적이야.”

“조르주. — 여보세요! … 네, 나야. 착한 아들이지, 응? 어때? 너는? 키가 얼마나 돼? … 너는 천사야. (브리자유가 웃는다.) 뭐? 너, 수신기 좀 내려놓을래? 여보세요! 아니, 브리자유랑 통화 중이야… 끊지 마요,

미스. 곧 점심 드시죠? 점심 드신 후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안녕…
뭐? 르 마탱? 르 마탱 신문에? 아니, 왜요? 뤼팽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고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니… 속임수군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봐요… 그녀 정말 매력적이야. (그가 종을 친다.) 베르토, 르
마탱 가져다 줘… 너, 르 마탱 읽었어?”

브리자유. — 아니, 안 읽었지만 르 에코 드 파리지는 읽었어.

베르토. — 손님이 오셔서 당신을 찾아오셨다.

조르주. — 누구지?

베르토. — 앙리 그르쿠르 씨다.

조르주. — 오, 그렇군.

브리자유. — 우리랑 같이 점심 먹나?

“조르주. 그 사람 알아?”

“브리자유. 아주 친하게 지내.”

“조르주. 세상에, 사이가 안 좋진 않지?”

“브리자유. 전혀 아니야. 방금 대단한 책을 하나 냈거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내용은 훌륭해.”

“조르주. 들어오시요, 그레쿠르 형제. 당신을 도덕적으로 문제적 인
물로 몰아가는 중이요.”

그레쿠르가 들어오며 말했다.

“브리아유가 나를 혈뜬는 거야?”

브리아유가 답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도덕적으로 문제적 인물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광고 효과를 노리는 거지. 하지만 결국 당신의 책, 『역사 속의 도둑질』은 도둑질을 옹호하는 책이야. 이제 그 도둑질은 역사가 된 셈이지.”

조르주가 종을 눌렀다.

“점심 전에 애피타이저 한 잔 어때? 점심은 반 시간 뒤에 먹으니까.”

그레쿠르가 말했다.

“포르토 한 잔쯤은 거절하지 않겠소.”

조르주가 브리아유에게 물었다.

“너는?”

브리아유가 대답했다.

“위스키 소다!”

베르토가 들어오며 말했다. “레 마탱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조르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포도주와 위스키를 좀 가져와라.”

그레쿠르가 입을 열었다. “아, 신문 이야기를 하다 보니, 피가로 신문을 읽어보셨나요?”

“아직 안 봤는데요. 왜요?”

“아르센 뤼팽의 서한이 실렸어요.”

조르주가 의아해했다. “피가로에도 실렸나요? 방금 약혼녀가 레 마탱 신문에 실린 내용이라고 전화를 해줬는데…”

그레쿠르가 손을 저었다. “아니, 기사 내용을 아직 안 보셨어요? 그 기사는 당신의 장모님이 될 분과 관련된 거예요.”

그는 주머니에서 피가로 신문을 꺼냈다. “서한 내용은 아주 훌륭하더군요. 깔끔하고, 거침없고, 오만하기까지 해요. 뤼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면…”

브라이유가 그의 말을 끊었다. “뤼팽 따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속임수를 부리는 놈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뿐이죠.”

조르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불이 없으면 연기도 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레쿠르. “뤼팽과 그 일화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 도둑은 내가 연구한 모든 범인 중 가장 대담하고 기이한 인물일세. 자,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보게. 듣는 재미가 있을 걸세.”

조르주, 편지를 읽으며. “수석 편집자 귀하… 일 년 전…”

베르토, 들어오며. “장 드 팔로아스 씨가…”

팔로아스, 들어오며. “자네, 친구야… 아, 안녕 브리자유. (그레쿠르에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조르주. “바론 장 드 팔로아스, 우리 나라의 국민 항공가이십니다. 그리고 헨리 그레쿠르 선생님, 우리 나라의 대문호시죠.”

팔로아스. “아, 선생님.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훌륭하더군요. 하지만 한 장이 빠져 있군요. 아르센 뤼팽의 장이요. (조르주에게) 자네, ‘르 고로’ 신문을 읽었나? 왜 웃고 있는 거지?”

조르주. “바로 그 때문이요. ‘르 마탱’ 신문의 아르센 뤼팽 편지를 읽으려던 참이었소. 그 편지가 ‘르 고로’에도 실려 있나?”

팔로아스가 주머니에서 <고로>지를 꺼내 들며 말했다.

“이 기사, 정말 대박이야.”

세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수석 편집국장 님……”

브리사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그렇지. 추첨으로 정하자.”

알베르가 이름을 알렸다.

“베르제 씨.”

조르주가 말했다.

“아, 우리 사브르(검)使い가 왔군. 오늘 아침에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지? 너희 둘은 아는 사이야?”

세 사람이 대답했다.

“네, 물론이지.”

베르제가 파로아즈에게 말했다.

“저는 그분, 과거에 그분과 결투할 때 증인으로 섰던 것 같습니다.”

파로아즈가 답했다.

“오해하시는군요, 저는 분명히 그분에게 칼을 맞았죠.”

베르제가 놀라며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조르주가 그레쿠르에게 물었다.

“그래, 그 기사는 어때?”

그리고는 베르제에게 물었다.

“오늘 sensationnal(센세이셔널)한 기사가 나왔다고 하던데.”

베르제가 말했다.

“아, 그거 말고 제가 더 좋은 걸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세 사람이 물었다.

“어떤 거야?”

베르제. 「르자르날」 지. (주머니에서 지를 꺼내며) 「르자르날」을 안 읽었소? 아르센 뤼팽의 편지 한 통이 있구려. (읽기 시작하며) “주필 각하…”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는다) 뭐 그렇게 웃는 거요?

그레쿠르. 그럼, 이건 공문 같은 거요?

조르주. 그레쿠르, 너는 강연도 하는 사람이잖아. 그 황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게.

조르주. 어라, 여기 물 한 잔 있고, 여기 초록색 천도 있군.

베르토. 죄송합니다, 각하. 각하는 「르쁘띠 자르날」도 안 읽으셨나요?

조르주. 아니, 왜?

베르토. 각하의 장인 되실 분, 그 분과 관련된 편지가 실려 있사옵니다. (읽기 시작하며) “주필 각하…”

조르주. 아! 베르토 씨, 그만두게!

베르토. 알겠습니다, 각하.

“파루아즈. ‘믿기 어렵군요. 그 편지는 틀림없이 <질 블라>지, <라 리브르 파롤>지, <르 빠띠 파리지앵>지, <코메디아>지 어디엔가 실렸을 거예요. 뤼팽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보세요!”

“그레쿠르. ‘내가 읽어 볼까요?’

“모두. ‘들으세요.’

“그레쿠르가 읽기 시작했다. “주필 귀하. 이 편지가 길어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설령 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 글이 독자 여러분께 그리 불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때?”

“조르주. ‘진짜 작위적이네!’”

그레쿠르가 말을 이었다.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년 전, 프랑스 대표로 봄베이 회의에 참석하던 아브르메니 백작이 임무 끝에 프랑스에 돌아올 때, 인도 라자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바치는 왕실 선물인 다이아데임을 가져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다이아데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에메랄드들이 빛나고 있다고 했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불안하다’라니, 정말 걸작이군요!

청중들이 외쳤다. “계속하세요! 계속!”

그레쿠르가 다시 말을 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 애국심은 여러 차례 시련을 겪어 왔사오니……’

참으로 매력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조르주가 물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이 편지가 바로 당신 손으로 쓴 것 같군요.”

청중들이 재촉했다. “편지를 보여주세요!”

그레쿠르. “……수없이 시련을 겪어 왔으니, 프랑스의 루브르 국립 박물관에 someday 전시될 왕관을 도둑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소.”

브리자유. “만세, 군대!”

그레쿠르. “이런 도덕이 문란한 시대에, 그 왕관을 무사히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오. 물론 그 ‘완벽한 정직한 사람’, 즉 ‘점 하나면 끝’인 사람은 아니지. 내가 말한 이는 아브르메니 백작이오.”

조르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발, 장난치지 마. 재미없어.” (그레쿠르에게) “아니, 웃지 마, 친구.”

그레쿠르. “만약 당신이 제 서비스를 거부하는 태도를 고집스럽게 고수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곧 완고함이 됩니다. 제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왕관을… 무슨 뜻인지 아시죠… 24시간 이내에 제 평소 주소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르센 뤼팽. 프랑스.” 이 편지는 정말 재미있네요.

조르주. “이건 그가 직접 쓴 글이야!”

그레쿠르. “이 편지는 이상하게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드아브르메니엘 씨가 이미 8일 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유명한 왕관을 지닌 발상 대사관 서기관이 오늘 밤 6시, 3월 14일에 파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14일 자정에 그 왕관이 제 손에 들어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 원망할 대상은 각하뿐입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저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재벌 디자이너나 문인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기꺼이 이 왕관을 선물했을 테니까요.’

조르주. “이건 정말 재미있군요! 완전히 유쾌하네요!”

그레쿠르가 말을 이었다.

“……그 밖의 문인들과 외교관들도요.”

“외교관이라고요, 친구. 그런 건 따로 있어요.”

조르주가 말했다.

“어쨌든 다들 제 약혼자의 아버지를 불쾌하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죠.”

브리아유가 말했다.

“하지만 뤼팽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파로이즈가 덧붙였다.

“경찰이 막막해할 때 퍼뜨리는 소문일 뿐이죠.”

조르주가 말했다.

“그 소문이 아파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만듭니다. 뤼팽이 나타나면 칼을 뽑아 들고 난리가 나죠.”

파로이즈가 말했다.

“오늘의 일일용 뤼팽을 좀 주시죠.”

브리아유가 말했다.

“나에게 뤼팽은 자크 ‘도살자’나, 그 밖의 그 같은 연인들과 같아요.
우리 공화국의 무능력과……”

베르제가 박수를 쳤다.

“잘했어!”

브리아유가 계속했다.

“……대중의 미신이 같은 전설적 존재로 만들어낸 거죠.”

모두가 맞장구를 쳤다.

“바로 그거야.”

파로아즈. “왜 코티용을 조종하느냐? 너는 연설가가 돼야 해.”

그레쿠르. “뤼팽을 잭 더 리퍼에 비유하다니, 정말 대박이야!”

베르제스. “그건 맞지. 뤼팽은 절대 살인자가 아니었어.”

파로아즈. “결투에서 누군가를 죽인 적도 없지.”

조르주. “너는 뤼팽의 실재를 믿는 거야?”

그레쿠르. “그래. 내가 믿어. 그가 왕관을 훔치겠다고 했잖아. 그 위협이 진심이라고 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나리자’를 건드리겠다고 했어.”

조르주. “음…”

파로아즈. “맞아… 신문에서 그 장난감 같은 기사를 읽었어.”

조르주.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뒤편을 믿는 거야?”

그레쿠르. “그래.”

브자유. (연극하듯) “나? 나는 신을 믿듯 뒤편을 믿어.”

조르주. “그가 할 일이죠. 그는 방금 도둑들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뒤편이 그 책에 시의성을 더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레쿠르.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나폴레옹의 존재를 부정하시렵니까?”

팔루아즈. “참 재미있네요!”

그레쿠르. “당연하죠. 그게 여러분의 원칙이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고, 기품이 있고, 우리를 압도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그를 조롱하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죠. 여러분은 기가 약하고 평범한 영혼을 가졌어요. 문학에 절어 버린 사람들이죠. 회의주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더구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조르주. “그럼 너는?”

그레쿠르. “전쟁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작 전쟁이 닥치면 모두 깜짝 놀라요. 사랑도, 영웅심도, 진정한 결투도 믿지 않죠.”

베르제. “아! 죄송합니다!”

그레쿠르. “결국 당신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세련되고, 너무 교양이 있어서, 우리 시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시대가 낳은 산물, 즉 그 결과이자 명백한 사실, 그 문서 같은 존재를 부정합니다. 바로 아르센 뤼팽이죠.”

조르주. “하지만 증거는 어디에 있소? 뤼팽을 믿는 당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레쿠르. “그의 행동을 근거로 하죠, 내 사랑. 그가 저지른 일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확인 가능한 일들이죠. 거기에는 뭐라고 할까… 제조사 고유 표지 같은 것이 있어요. 새롭고 독보적인 방식이죠.”

브자유. “오히려 방식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레쿠르. “각각의 사건을 살펴봐. 상테 형무소에서의 탈출 사건, 카혼 사건까지. 어디를 가나 똑같은 행동 방식이 눈에 띈다. 아직 그 이면의 비결은 모르겠지만, 마치 지문처럼 그만의 고유한 서명처럼 분명하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이지.”

베르제스. “일리는 있어.”

그레쿠르. “그건 일종의 압박이야. 표적이 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조종이지. 여러 단계에 걸친 정교한 접근법이라고 할까.”

팔루아즈. “그래, 하지만…”

그레쿠르. “적의 점진적인 침투 말입니다. 속임수와 과장, 요컨대 복잡하게 얽힌 어두운 음모의 체계죠. 하지만 모든 수법이 공통점을 하나 지니고 있습니다. 계산된 위세와, 오만하며 수학적인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 증명을 요구하셨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모두 그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뤼팽이 바로 다르벨 공작이라는 주장이 없었습니까?”

베르제. “다르벨! 에두아르 다르벨!”

그레쿠르. “네.”

조르주. “다르벨! 내가 다르벨을 알았어.”

팔로아즈. “나도요. 사실 그의 평판은 좋지 않았죠. 조키클럽에서 낙선을 했으니까.”

그레쿠르. “무엇에서도 그랬습니다.”

베르제. “다르벨! 바로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창백하고 잘생겼으며, 다르제시와 닮은 그 젊은이가 아니었나요?”

그레쿠르. “맞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점이 있었죠. 둘 다 유행을 타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거의 십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아르벨이 사라졌어요. 이튿날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요. 우리는 그를 호주까지 쫓아갔죠. 마침내 그를 붙잡았을 때, 우리가 잡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보니 깜짝 놀랐어요.猜猜看?”

브리아유. “알폰소 13세?”

그레쿠르. “아니요. 다르드레시였죠.”

조르주. “뭐라고?”

베르제. “불쌍한 다르드레시! 얼굴이 얼마나 찌그러졌을까요? 그는 아르벨과 매우 친했거든요.”

조르주. “아, 그들이 정말 친했나?”

브리아유. “하지만,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지?”

팔루아즈. “누가요? 아르벨이나, 다르드레시냐?”

브리아유. “다르드레시가요. 아르벨은 흥미롭지 않아요.”

그레쿠르. “아니면, 그가 튀팽일 수도 있겠네요.”

파로아즈. “드랑드레시가 죽었다는 소문은 들었소.”

베르제. “나한테는 하렘에 잠입해 파샤의 부인을 납치했다는 소문이 돌아오더군.”

브리야유. “나한테는 들은 바가 달라. 들소를 사냥하다 호랑이를 만나 그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야. (조르주에게) 왜 웃소?”

그레쿠르. “나한테는 금광을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소. 그의 가족 친구에게 직접 들은 말이오.”

파로아즈. “게다가 그의 가문은 꽤 명성이 높소. 드랑드레시는 샤메라스 공작의 조카니까.”

베르제. “그렇지만 재산은 없지. 오히려 재산이 없어서 떠났다는 소문도 돌아왔소.”

브리야유. “나한테는 그보다 더 무서운 소문이 돌아왔어.”

일동. “무슨 소문?”

브리야유. “기억은 안 나. 하지만 정말 끔찍할 만큼 무서운 소문이다.”

그레쿠르. — 어쨌든 그는 세상에 모습을 감췄군. 파리에 사는 사람이 한 명 줄어든 셈이지…… 그런데, 조르주. 이쯤 되면 배가 고파 죽겠는걸.

일동. — 맞아.

브리자유. — 그럼 밥이나 먹을까.

조르주. — 안 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그레쿠르. — 누구?

조르주. — 파산하지도 않았고, 터키 여자를 납치하지도 않았으며, 호랑이와 씨름하다 파상풍에 걸리지도 않았어. 평소대로라면 딱 지금 쯤 와야 해.

그레쿠르. — 우리를 장난감으로 여기는 거야?

조르주. — 내가 마지막으로 본 건 여섯 달 전, 티베트였어. 그때 그가 내게 말했지. “3월 1일 월요일, 정오 15분에 내 집에서 점심을 먹으라”고.

브리자유. — 떠돌이 유대인 이름이냐?

조르주. —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일동. — 고마워.

조르주. — 적어도, 내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여야 해. 그가 내 목숨을 구해줬거든.

일동. — 대체 누구냐?

조르주. “하지만 그분은 너무 신비롭고, 너무 산만하단 말이야...”

브리아유. “터프뉴의 이름을 말해. 안 그러면 이 꽃병을 깨부수겠어.”

조르주. “아! 그건 깨지 마. 안드레시에서 가져온 거야.”

브리아유. “오!”

조르주. “미친놈!”

베르제. “안드레시? 그럼 그분은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야?”

조르주는 파편들을 주우며 말했다. “세상에 하나뿐인 꽃병이었어.”

그레쿠르. “그분께서 점심을 먹으러 오신다고?”

브리아유. “그분께서 당신의 목숨을 구해 주셨다고?”

그레쿠르. “이야기를 해 봐.”

조르주. “너희라면 절대 믿지 못할 거야. 파리에서는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어 보일 테니까.”

일동. “그래, 믿어.”

조르주.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겁쟁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런 적 없는 공포를 느꼈거든.”

파로아즈.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군.”

조르주. “원하시면 드릴게요. 메나손과 켈커타 중간쯤에 성스러운 사원이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유럽인들에게는 위험한 곳이고, 여성은 아예 출입이 금지되어 있죠. 그 사원을 지키는 신도들은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수장은 라싸의 달라이 라마라고 합니다.”

브리자유. “아니, 친구야. 지리 이야기는 그만해. 머리가 복잡해지고 지겨워.”

조르주. “좋아요. 하지만 그 사원에는 끔찍한 전설이 돌고 있어요. 형벌, 인간 제사, 고문 같은 것들이 말이죠.”

파루아즈. “쿠크 여행사. 입장료 2프랑.”

조르주. “너 정말 바보야. 그런 곳은 실제로 존재해.”

그레쿠르. “맞아. 실제로 존재해.”

조르주. “그날 밤, 우리는 안드레지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력이 과도하게 고조되어 있었어요. 안드레지는 사흘 전에야 겨우 알게 된 사이였죠. 그런데 아무 예고도 없이, 저는 약혼녀와 크리치코프 씨를 데리고 사원으로 향했어요.”

베르제. “그런 경우에 여자를 데려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조르주.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그들이 자꾸 따라오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 가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나처럼 험령한 플란넬 옷을 입고 있어, 마치 젊은 소년들처럼 보였죠. 그 여정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어요. 저녁 여섯 시쯤, 일몰이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며……”

브리자유. “지루해 죽겠네!”

조르주.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군요.”

“그레쿠르, 브리야유에서.”

“그래, 그러니 좀 조용히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

게오르주. “결국 우리는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우리는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유백색의 빛이 깔려 있고,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군요. 장미와 유향의 향기 사이에서, 숨 막힐 듯한 끔찍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발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제단이 우리를 끌어당겼죠. 흰색과 검은색 대리석으로 만든, 장례용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 앞에는 세 명의 사제가 서 있었습니다. 두 명은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읊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 살아있는 무언가, 고통스럽게 숨 쉬는 무언가 쪽으로 몸을 굽히고 있었죠.

갑자기 비명,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를 목을 베는 소리였죠. 우리는 공포에 떨며 그 자리에 굳어 버렸습니다. 크리치코프 씨가 제 곁에 있었고, 드아브르메니유 씨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몇 명의 브라만들이 가로놓여 있었죠. 그들은 유령처럼 하얀 얼굴을 하고 하나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힌 저는 길을 뚫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강하게 밀쳐냈고, 이미 권총을 찾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꼭 잡더니, 입에 행주를 막아넣더군요. 드아브르메니유 씨가 비명을 지르자, 끔찍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그가 제

단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 그가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제물이 바쳐진다는 것을.”

베르제. — 하지만, 이건 너무 비열한 짓이야!

모두. — 그리고서?

조르주. — 그리고서, 성소 깊숙한 곳에서 작은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나는 드랑드레시를 알아봤다. 그는 제단 쪽으로 다가가, 드아브르메니르 백작을 둘러싼 비참한 자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러고는 손짓을 하나 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다. 말 한마디 없었다. 나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입에 막혔던 천이 떨어졌다. 성소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몇 초 후, 우리는 세 사람만 남았다. 드랑드레시를 마주하고.

베르제. — 연극이었군!

브자유. — 너의 드랑드레시는 바로 몬테크리스토타.

“조르주. ‘농담이시군요.’ 나는 그곳에서 겪은 공포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더 기이한 건, 안드레시가 문턱에 나타나 여유 있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느꼈던 평화와 확신의 감각도 잊지 못한다는 거지.”

“그레쿠르. ‘연극이야! 연극일 뿐이지.’”

“조르주. ‘그래도 좋소. 하지만 그 속셈은 무엇인가? 그 장치는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제들을 휘두르는 권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베르제. ‘그렇다면 그 자신은 당신에게 어떤 설명을 했소?’”

“조르주. ‘없었지. 그는 미소 지었을 뿐이야. 그 정의할 수 없는 미소로. 그리고 말했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요.”라고. 이어 “게다가, 당신이라면 나를 잘못 이해할 테니.”라고 덧붙였네.’”

“그레쿠르. ‘결국, 당신은 안드레시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조르주. “모르겠군요. 그 남자가 제 목숨을 구해 주었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목숨도 구해 줬으니까요. 깊은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레쿠르. “그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나요?”

조르주. “네, 아니요. 알 수 없는 감정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동정과 불쾌감이 뒤섞인 느낌입니다. 그는 우리와 너무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는 세상의 그 누구도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짐작하지 못할 것을 간파합니다. 그 남자 안에는 fakir(요가 수행자) 같은 무언가가 숨어 있어요.”

브리자유. “그가 커피 찌꺼기를 읽어내나요?”

조르주. “보세요. 어제 밤에 제가 애지중지하던 반지를 잃어버렸거든요. 구르샤르의 비서를 불렀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안드레시가 단 오 분만 대화해도 그 반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말해 줄 거라고요.”

팔루아즈.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브리자유. —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천 프랑은 아깝지 않을 텐데.

조르주. — 그리고 뭐라고? 그 인간은 나를 압도해. 내가 느끼기에 그는 분명히 나보다 우월하거든. 그가 가진 재주라든가, 우리를 조종하는 비결들 때문에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위압적인 매력에 사로잡혀 있어. 매력적인 인간이지… 그래, 브리자유, 네가 그 단어를 썼잖아. 몬테크리스토… 몬테크리스토가 알베르 드 모르세르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겠지.

브리자유. — 천만에! 네 자리라면 나 역시 그토록 평온하지는 않을 거야.

팔루아즈. — 내 생각엔, 넌 그냥 악몽을 꿔을 뿐이야. 그레쿠르, 너는 뭐라고 생각해?

그레쿠르. “자, 나는 다릅니다, 여러분. 뤼팽은 인정하지만, 몬테크리스토까지 믿지는 않아요. 조르주, 방금 그 생각이 떠올랐죠? 최근 <몬테크리스토>를 읽지는 않았어요?”

조르주. “장난하네요. 왜 그런 말씀이죠?”

그레쿠르. “상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몬테크리스토>를 가지고 있죠?”

조르주. “네, 있죠.”(서재의 책장을 가리키며) “드마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레쿠르. “좋아요, 기다리세요, 친구야.”(책을 찾는 사이 말을 이었다) “3권입니다. 알베르 드 마르세프 백작이 로마에서 이탈리아 강도들에게 납치되자, 몬테크리스토가 그를 신비롭게 구해냅니다. 당신을 안드레시가 구한 것과 똑같아요. 또한 마르세프도 몬테크리스토에게 자기 집에 와서 정오 반에 점심을 먹자고 약속합니다.”

브리아유. “조금 이른 시간인데.”

그레쿠르. “모르세프처럼, 당신도 이 점심식에 단디와 몇몇 부르주아를 초대하오.”

브자유가 그레쿠르를 가리키며 말했다. “세상에 유명한 문인이요.”

그레쿠르. “모르세프처럼요… 하지만 잠깐, 여기 기사를 읽어봅시다.”

“‘비웃으시라요, 마음껏 비웃으시라요,各位.’ 모르세프가 약간 분개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들, 즉 파리 사람들과 부르바르의 단골손님들, 부아 드 부아농을 거니는 자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우리는 서로 다른 종족에 속한다는 것을.’”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보샤나 브자유가 말했다.

“어쨌든,” 샤또르노 또는 팔루아즈가 덧붙였다. “당신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여가 시간에 있어서는 훌륭한 신사이오. 다만 이탈리아 강도들과의 작은 거래들만큼은 예외지만요.”

“이탈리아 도적 따위 없어.” 드브레나 그레쿠르가 말했다.

“몬테크리스토도 없어.” 보샤이 덧붙였다.

“자, 친구. 이제 열한 시 반이군. 네가 악몽을 꾸었다는 걸 인정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자.” 보샤이 말했다.

그때 종소리가 아직 몇지 않았을 때, 문이 열리며 제르맹이 외쳤다.
“소령 각하……”

베르토가 말했다. “안드레지 백작님!”

안드레지. “자, 조르주. 나는 제시간에 왔지. 여섯 달 전, 3월 1일 한 시 사십오 분에 만나자고 했잖아. 그리고 봐, 지금 정확히 한 시 사십오 분이야. 내가 몬테크리스토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조르주. “내가 뭐랬어? 이 녀석은 점쟁이야. 우리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드랑드레시 씨. … 제가 딱 예상했어요. 제가 막 내렸으니까요. 충실한 베르토에게 외투를 맡기는 순간이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소리요?”

“당신은 충실한 베르토라고 했잖소. 그 사람을 알고 계셨나 보군.”

“물론이지. 열 년 전, 당신의 가엾은 어머니 댁에서요. 하지만 당신은 집주인의 예의를 잊으셨군요, 친애하는 조르주 씨. 제가 직접 소개해야겠네요.”

잠시 망설이던 당드레시가 입을 열었다.

“그레쿠르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당신의 책 『시대를 관통한 도둑질』은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특히 17쪽에서 19쪽까지의 페이지는 저의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

그레쿠르. “아, monsieur..... 그 말씀 듣다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페이지야말로 제가 유난히 아끼는 곳이지요..... 그리고 monsieur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다니, 저는 첫 독자입니다.”

조르주. “베르제스 monsieur.....”

당드레시. “오, 물론입니다. monsieur를 알고 있습니다. 함께 검무를 배웠죠..... 룰랑의 강습소에 함께 있었어요.”

그레쿠르. “오해하셨습니다, monsieur……. 저는 그곳에 다니지 않았습시다.”

당드레시. “아주르 서클에서요?”

그레쿠르. “아, 네……. 그렇군요, 제 기억에도 그렇습시다.”

당드레시. “그렇죠?”

조르주. “장 드 팔로아즈 남작을 아십니까?”

당드레시. “물론이지요. 서클 동료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전거가 아직 신화처럼 존경받던 시절의 자크민 꽃무늬 넥타이를 매고 다니던 그분요?”

팔로아즈. “어머, 정말이군요……. 하지만 제 말입니다…….”

“앙드레시.”

“너희, 나를 기억하지 못하네… 브리자유, 너도 마찬가지로?”

“에타프 공작부인 댁에서 함께 추었던 마지막 코티용을 잊어버렸나?”

브리자유가 말했다.

“아니, 전혀요. 다만, 당신을 기억할 만한 상상은 하지 못했어요.”

앙드레시가 탄식했다.

“슬프군… 거울이 내게 내린 가혹한 판결이 맞군. 나는 정말로 많이 늙었나 보다.”

브리자유가 재촉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앙드레시가 물었다.

“무슨 말인가?”

브리자유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젊어졌어요.”

파로아스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앙드레시가 놀라며 말했다.

“오!”

브리자유가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당신의 눈빛이랑 손짓이… 옛날의 앙드레시 같아. 잘 지내나, 친구?”

앙드레시가 답했다.

“매우 잘 지내네. 너는?”

브리자유가 추억에 잠겨 말했다.

“우리가 함께했던 파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옛 친구, 보니까 기분이 좋군.”

베르토가 말을 끊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모두.” “아!”

브리아유는 조르주에게 말했다. “아니, 그 반지 말이야.”

그레쿠르. “아, 그렇군. 반지.”

당드레시. “어떤 반지?”

브리아유는 당드레시에게 물었다. “봐라, 친구. 우리 여전히 친하게 지내지? ‘너’라고 부르잖아?”

당드레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렇지.”

브리아유. “네가 예지력이 있다는 소문이야. 마법사가 됐다는 말도 듣고.”

조르주. “장난이야, 당드레시 친구. 하지만 내 집에서 반지가 사라졌거든.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구르샤르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 네게 조언을 구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야.”

브리아유. “그가 네가 오 분 안에 반지를 찾아낼 거라고 확신했어.”

조르주. “응, 내가 너무 약점이 있었지.”

당드레시. “오 분? 가능해.”

모두. “아!”

당드레시. “반지가 언제 사라졌지?”

조르주. “모르겠네요. 어제 오후 네 시쯤엔 아직 화장실 벽난로 위에 있었는데, 자정이 넘어 돌아왔을 땐 이미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앙드레시. “그 방에 누가 들어왔단 말인가?”

조르주. “제 하인들뿐입니다. 의심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앙드레시. “반지에 특별한 특징이 있나? 예를 들어…… 아주 얇은가?”

조르주.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아시오?”

앙드레시. “문을 열어주던 그 소년, 즉 하인 소년을 오래 알고 지냈나?”

조르주. “아니요, 팔 일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애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앙드레시. “그애가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오른손 중지에는 커다란 구리 반지를 끼고 있었나?”

“게오르주. 오른손 중지에도 반지를 끼고 있나? 나는 그런 건 처음 봤네.”

“당찬드리시. 어떤 구실로든 하인을 부르시오. 잠깐만요. 반지를 돌려주겠는데, 그 대가로 그 범인이 여기서 무사히 나가도록 해달라고 약속해 주겠소?”

“게오르주. 내 맹세요. 하지만…”

“당찬드리시. 당신에 대한 정으로 이 작은 봉사를 해줄 수 있소. 하지만 나는 고발자도, 심판자도 아니요. 오히려 그런 일은 내 성미에 맞지 않소.”

게오르주가 종을 누르며 말한다. “그렇다면 알베르를… 그 서류가 완벽한 그 소년을… 결국…”

알베르가 들어온다.

“알베르, 그래, 전화기 좀 써주게. 차고로 전화해서… 그래, 세 시에 차를 준비해 달라고 해.”

“알베르. 알겠습니다, 선생님.”

드랑드레시는 담배를 입에 물고 알베르에게 물었다.

“무언가 찾고 있군요… 성냥… 성냥을요.”

알베르가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각하.”

드랑드레시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있소?”

알베르가 놀랐다.

“저를요, 각하?”

드랑드레시가 손가락의 반지를 가리켰다.

“손가락에 낀 그 거대한 구리 반지 말이오. 그런 반지를 만들고 쓰는 부족은 단 한 곳뿐이거든.”

알베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그건 친구가…”

드랑드레시가 말했다.

“한번 보여 주시오.”

알베르가 불쾌한 듯 물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도대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요?”

드랑드레시가 정중하게 말했다.

“부탁입니다.”

브라이유가 낮게 중얼거렸다.

“드랑드레시가 곧 구타당할 거야.”

드랑드레시가 다시 알베르에게 말했다.

“그 반지가...”

알베르가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드랑드레시가 알베르의 옷깃을 잡는다. 알베르이 발버둥치며 넘어진다. 드랑드레시가 반지를 낚아채고, 무릎으로 알베르를 눌러 누른 채 반지를 뜯어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지를 꺼낸다.

그에게로 향한다.

“이게 바로 그 반지인가?”

조르주.

“아... 네... 맞습니다.”

드랑드레시가 알베르를 향해 말한다.

“자네는 비열한 놈이야, 아가씨. 하지만 이번만은 용서해 주마. 자네는 여기서 자유다. 다른 데서 처형이나 받으러 가라.”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다치게 했나?”

알베르.

“아니요, 사장님.”

베르토가 들어와 알베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본다.

“오!”

조르주가 베르토에게 말한다.

“알베르를 해고했다. 장에게 가서 그와 함께 올라가서 짐을 뒤져보라고 해라.”

베르토.

“오!”

조르주.

“그럼 이제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겠군요.”

팔로아즈.

“저는 배가 부르네요.”

브자유.

“들어봐, 자네 정말 대단했어.”

조르주. — 드디어 점심을 먹자고. 어휴, 미친놈 같은 놈이!

일동. — 뭐야? 또 뭐가 문제야?

조르주가 작은 상자를 들어 올렸다. — 진주? 그 도둑놈이 내 것을 훔쳐가지는 않았길 바라. 어휴, 만약 그 놈이 이 진주를 훔쳐갔다면… 아니, 여기 있군.

당드레지. — 진주라고?

조르주. — 응, 여기 있어. 어제 샀거든. 내 약혼녀가 그걸 눈여겨봤거든. 그래서 그 도둑놈이… 아니, 괜찮아. 이걸로 멋진 목걸이를 만들 수 있겠지?

당드레지. — 정말 아름답군.

베르토. — 손님,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르주. — 알베르가 떠났나?

베르토. — 네, 선생님. 짐도 싸지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조르주. — 잘됐어. 자, 모두 식사합시다. (당드레지에게) 그리고 후베르, 정말 고마워.

당드레지. — 뭐, 별일 아니야!

제르맹이 들어오며, 밖을 향해 소리쳤다. “신부님, 그분에게 알리지 마요. 절대 말하지 마요!”

소니아를 향해 고개를 돌린 그녀는 말했다. “정말 재미있네요. 들어오세요, 소녀야. 모두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소니아가 물었다. “만약 대사님이 우리 짓궂은 장난을 알게 된다면, 화를 내실 거예요.”

제르맹이 대답했다. “소녀야, 아빠는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셔. 그분은 직업적인 사람이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그저 아주 심하게 불쾌해하실 뿐이야. 내가 남자에게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 알지?”

소니아가 말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르맹이 말했다. “뭐? 정말 멍청하네요! 왜 약혼녀가 약혼남 집에 가서 구석구석 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잘 짜여진 규칙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조르주는 깔끔한 사람인데.”

소니아가 말했다. “조르주는 깔끔하죠. 하지만 계속한다면...”

제르맹. “조르주가 누구를 점심에 초대했는지 보고 싶어요. 아, 정말요? 만약 여자라면……. 식당이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나지 않게 살짝 문만 열어볼게요.”

소니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르맹. “어떻게요?”

소니아. “나무가 삐걱거릴 거예요. 열기 전에 먼저 잠금장치를 들어 올리고요.”

제르맹. “맞아요…… 아, 알겠어요. 오!”

소니아. “무슨 일이야?”

제르맹. “여자의 모자……. 불쌍한 놈! 아, 아니야. 꽃 바구니였네.”

소니아. “정말 재밌네요.”

제르맹. “브리아유가 보이네요. 팔루아도 있고…… 아, 조르주가 나왔어요. 다들 귀를 기울이고 있네요. 대체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걸까……. 오!”

소니아. “또 뭐야?”

제르맹. “천 번이나 말해줘도 맞히지 못할 거야! 누가 있는지 맞춰봐.”

소니아. “누구?”

제르맹. “당신의 연인이야.”

소니아. — 무슨 생각이에요!

제르맹. — 당신과 캘커타에서 사귀던 남자, 당신이 존경하면서도
속이 타는 그분요.

소니아. — 안드레지 씨!

제르맹. — 봐요!

소니아. — 정말이에요!

제르맹. — 아, 당신이 붉어졌네요.

소니아. — 또 이런 장난이에요.

제르맹. — 붉어졌어요, 미망인님. 그리고 지금도 또 붉어지고 있죠.

소니아. — 조심해요… 그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제르맹. — 응.

소니아. — 빗장을 들어 올렸어.

제르맹. — 응… (문을 닫으며.) 그걸 보고 놀랐지, 뭐?

소니아. — 뭐요?

제르맹. — 안드레지 씨를 다시 뵈어서요. 인정하세요, 당신 스타일이잖아요.

소니아. — 미망인님, 말씀하시는 방식이 좀...

제르맹. — 둘 다 뭍바이에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나로서는 그가 당신에게 반한 것 같아요...

소니아. “안드레시 씨는 저 같은 불쌍한 여자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제르맹. “그건 당신이 예쁘기 때문이죠.”

소니아. “아니예요.”

제르맹. “예쁘죠. 정말요. 게다가 까칠하고 wild한 성격이시죠. 안드레시 씨가 지어주신 님네임 ‘다이안’이 딱 맞아요. 다이안!”

소니아. “자, 그만해요.”

제르맹. “아니요? wild하지 않으신가요?”

소니아. “저는 가벼운 말장난이나 진부한 수작이 싫을 뿐이에요.”

제르맹. “이런, 자물쇠가 잠겨 있네요.”

소니아. “무슨 짓을 하세요?”

제르맹. “잠겨 있어요.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보고 싶네요. 불미스러운 편지 같은 게 있을 테니까요.”

소니아. “그게 오히려 보지 말아야 할 이유죠.”

“제르맹. 조르주가 인화무늬 작은 서랍장에 모든 비밀을 간직해 둔다고 말했어. 자물쇠를 여는 요령을 하나 알려줘.”

“소니아.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원하신다면…”

“제르맹. 와 봐요. 당신은 손재주가 좋아서 온갖 요령을 다 알고 있잖아요.”

“소니아. 당신이 무슨 일을 할지 목격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태도가…”

“제르맹. 미스, 그만두세요. 또 시작이네요.”

“소니아. 잘됐어요. 누군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제르맹. 하지만 서랍은 열렸어. (문이 열리며) 오!”

“소니아. 네, 조르주 님, 그녀가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조르주. 제르맹, 부끄럽지 않아요?”

“제르맹. 부끄럽지 않아요.”

“조르주. 최소한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않았죠?”

“제르맹. 가져갔어요.”

“조르주. 어떻게 가져갔다고! (그가 살펴본다) 제르맹, 내 편지들을 돌려줘.”

“제르맹. 평생 절대요! 대체 누구 편지예요?”

“누구 것도 아니야… 친구 것이지… 내게 돌려줘.”

“친구 것이라면 내가 봐도 되죠.”

“안 돼.”

“그럼 여자 편지겠네.”

“제르맹, 당신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랑해 주시나요, 아니요?”

“소니아…”

“아, 소니아! 가사 다툼에 끼어들지 마. 서고에서 뒤져봐. 책 찾기가 네 특기잖아.”(조르주에게) “이 편지들, 대체 누구 거예요?”

“제르맹, 말이 안 돼!”

“그럼 약혼한 남자가 여자 편지를 간직한다는 거요?”

“글쎄, 그래… 여기 있는 건 여자 편지 맞아.”

“세상에, 너무하네요!”

조르주가 그녀를 쫓아간다. “제르맹!”

제르맹. — 아, 내가 보고 싶어… 오, 저것…

조르주. — 이제야 제법 잘 찾았네요.

제르맹. — 내 거였어… 하지만 편지만 있던 건 아니야…

조르주. — 제르맹, 아니야. 그러지 마.

제르맹. — 손수건 한 장… 리본 하나… 부채 깃털 하나…

조르주. — 내 처지에서 보면… 외교관으로서…

제르맹은 소니아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 미스,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지 맞춰보세요.

조르주. — 제르맹, 난 보고 싶지 않아.

제르맹. — 오, 남자는 자만심이 세다니까. 조르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조르주. — 너는?

제르맹. — 나도요.

조르주. — 그럼 키스하자.

제르맹. — 오, 소니아 앞에서요?

조르주. — 개가 도서관에서 뒤흔고 있잖아.

제르맹. — 나중에 차 마시러 올 거야?

조르주. —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제르맹. — 별말을 다 하시네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한테 대들었으니깐, 지금 기분이 아주 좋으실 테죠. 그럼 손님들께로 돌아가시죠. 아, 아빠한테 제가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조르주. — 아빠가 엄청나게 화를 내실까요?

제르맹. — 당연하죠. 지금이 화를 내시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빠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예민해져 계세요!

조르주. — 아, 그렇군요. 그 장난감 같은 편지, 아르센 뤼팽의 편지 때문에 아빠가 상심하셨나요?

제르맹. — 오, 그건 아니에요. 아빠는 뤼팽을 믿지 않으세요. 무신론자 같은 강직한 분이죠.

조르주. — 그건 딸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이군요.

제르맹. — 물론이죠. (소니아에게) 마담, 짐을 싣고 출발합니다.

소니아. — 무슨 말씀이세요?

제르맹. — 짐을 싹싹 싸서, 시동 걸고, 그냥 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대체 뭘 배우는 거죠?

소냐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책을 하나 집어 든다.

“조르주 씨, 책 한 권 빌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어느 걸로 할까?”

“영문에서 번역한 책이 있어요. ‘처녀 여성이 모든 남성, 심지어 다른 여성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제목의 책 말이에요.”

제르맹이 탄식한다. “세상에, 무슨 책이래요. 정말 말도 안 돼.”

그리고는 조르주에게 다가가 말한다. “조르주, 내게 한 번만 약속해 줘.”

“무슨 일인데?”

“내가 왔다는 사실을 어떤 손님에게도 말하지 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짓은 예의에 맞지 않아.”

“알았어. 비밀로 할게.”

“아니, 안드레시 정도 절대 말하지 마. 소냐가 그 남자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소냐가 반박한다. “제르맹씨...”

제르맹이 그녀를 밀치며 웃는다.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안녕!”

“안녕!”

베르제. “그래, 정말로, 그걸 내게 가져다줄 수 있다고 확신하나?”

당드레지. “공화국 대통령이 당신의 명예 시험에 참석하는 일? 그것은 당연한 이치야.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베르제. “정말인가? 우리 사교클럽은 막 시작한 곳이라, 그런 일이 있으면 위상이 달라질 거야. 고마워. 동료들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가?”

당드레지. “엘리제 궁에는 가지 않아. 너무 복잡하거든. 하지만 정부 측과는 꽤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그레쿠르 씨, 노벨상 이야기는 어때?”

팔로아즈. “그는 그 일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집착이 있지. 정말 우스꽝스럽군. 나는 솔직히 말해, 레지옹 도뇌르 훈장 같은 건…”

당드레지. “노벨상? 스웨덴에서?” 그레쿠르 씨,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그레쿠르. “진심이야?”

당드레지. “오늘 밤중에 그 시키 백부에게 편지를 쓰겠소.”

그레쿠르. “헛소리야!”

당드레지. “내 말 믿어. (파로아스에게로 다가서며) 당신도… (그의 옷깃을 잡으며) 이걸 확정이야.”

파로아스. “아니요. 레지옹 도뇌르 훈장? 제가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아, 친애하는 친구여,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거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브리야유. “애, 친구야?”

당드레지. “무슨 일이야?”

브리야유.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다는 걸 눈치챌겠지. 다른 애들은 다 당신 뒤에 붙어 다니잖아. 당신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나만큼 잘 알지 못해. 우리는 서로 ‘너’라고 부르고, 오랜 친구 사이잖아. 어쨌든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지, 그렇지?”

당드레지. “응, 아무것도 없지.”

브리야유. “그래, 옛날 친구야. 내 생각엔 담배 가게가 딱이야.”

당드레지. “뭐? 담배 가게를 원한다는 말이야?”

브리야유. “응. 그 여자는 연극 무대에서 마뉘통 후작부인 역을 맡았던 적이 있어. 내년에는 노보테 극단과 계약도 잡혔지. 그러니까 이 일은 어머니를 위한 거야.”

당드레지. “그건 좀 어렵군. 어머니를 문지기 자리로 만족시킬 리가 없잖아.”

브리아유. “아니, 절대 안 돼. 문지기 자리라니, 꿈도 못 꾸지. 다른 건 다 좋으니까.”

당드레지. “왜?”

브리아유. “이미 어머니가 문지기거든요.”

당드레지. “아, 그렇군. 그럼 내가 알아볼게. 너 그 여자를 보내주겠나?”

브리아유. “어머니를?”

당드레지. “아니, 딸을.”

브리아유. “고맙다, 옛날 친구. 정말 대단한 놈이군.”

조르주가 들어왔다.

“아, 식탁에서 물러났나?”

그레쿠르가 말했다.

“너, 정말이지. 저 사람, 정말 매력적이야.”

“누구?”

모두가 합창하듯 말했다.

“아, 정말 일품이야. 매력적이잖아. 당드레지? 그 녀석, 정말 대단한 타입이지.”

베르토가 들어왔다.

“각하, 보석상입니다.”

조르주가 물었다.

“보석상?”

베르토가 답했다.

“반지 틀을 고치러 오셨다고 합니다.”

조르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 진주 때문이군. 약혼녀에게 줄 선물인데…… 잠깐만.”

그는 상자를 들어 열어보았다.

“어이쿠! 이걸 좀 이상하군. 말이 안 돼.”

모두가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지? 뭐가 문제야?”

조르주가 말했다.

“내가 잘못 본 게 분명해. 아니, 진주가 없군.”

모두가 다시 물었다.

“무슨 소리야?”

조르주가 대답했다.

“진주가 없어.”

모두가 놀라서 되물었다.

“진주가?”

조르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도 잘 봤지. 방금 전까지 내가 직접 보여줬잖아.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어.”

브리자유. — 헛소리야!

안드레시. — 뭐라고? 방금 전까지 그 진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는 말이야?

조르주. — 네, 맞아요.

안드레시. — 아니야.

조르주. — 아니에요!

안드레시. — 아니라고! 넌 착각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조르주. — 네, 하지만 정말 그래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안드레시. — 나? 그건…… 정말 놀랍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어, 그런데……

조르주. — 누군가를 의심하시나요?

안드레시. — 아, 아니야. 이번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해.

조르주. — 네, 맞아요. 정말 이상하죠. (베르토에게.) 베르토, 넌 이
방에 들어가지 않았지? 식탁을 서빙하고 있었잖아. (외쳐서 부른다.)
요제프! (그에게 속삭인다.)

요제프. — 선생님은 그냥 미스에게 전화하시면 돼요. 저는 문밖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조르주. 알겠소. 더구나 당신을 믿는 편이 낫소.(베르토에게) 보석
상인을 보내시오.”

“단순하오. 우리 모두를 수색해야 해.”

“나도, 조르주도?”

“그렇지 않소? 이 진주를 가져간 사람은 우리 중 한 명뿐이니까.”

“뭐?”

“방금,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방에서 누구를 만났소?”

“아무도… 나는…”

“그렇지 않소. 말해보시오.”

“그래, 말해.”

“아니… 내 가족들… 내 형… 내 사촌…”

“그래, 당신의 형은 알겠소. 하지만 사촌은?”

“아, 내 친구여…”

“무슨 소리요! 이제 우리끼리 서로 의심하는 지경이 되었소. 그러니 조금은 과한 말을 해도 괜찮소.”

“조르주. 친구들, 더 이상 조르부리지 마.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죽을 일은 아니야. 뭐, 정말 불쾌할 뿐이지. 그거뿐이야.”

“아니, 나는 반드시 수색을 받아야 해. 절대적으로 필요해.”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도둑에 대해 책을 썼잖아. 그래서 내가 강박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병자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

“제발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실례예요.”

“조르주가 맞아요,各位. 여러분은 그의 친구이고 이 집의 단골손님이지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조르주와 나만 남겨두세요.”

“당신 미쳤어요, 드랑드레시!”

“그렇다면 조르주도 수색해야 합니다.”

“게다가 실수로 진주를 주머니에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조르주. — 어라! 그런 생각은 못 했네. 사실은…… 오!

모두. — 뭐야?

조르주. — 안감 속에…… 하지만 내가…… 내가……

모두. — 아!

조르주. — 맞아…… 있었어. 봐. 만져 봐.

드랑드레시. — 정말이군.

베르제. — 이런 장난은 누구에게나 통하지 않아.

조르주. — 죄송합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우스꽝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모두. — 아니야. 별일 아니야.

브자유. — 그래, 친구. 오히려 그래. 친구를 믿는다 해도…… 이런 보석을 잃으면…… 그래도 뭔가 남는 법이지.

조르주. — 안감을 뜯어볼게요. 그런데, 이미 떠나시나요?

베르제. — 응, 피기 대회가 있어.

파로아즈. — 나는 클럽에서 약속이 있어.

그레쿠르. — 나는 의회로 가야 해.”

“브라이야유. —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군.”

조르주. — 그럼, 나중에 다시 보자. ‘유니온’으로 가는 거지?

모두. — 응, 응.

조르주. — 그럼, 나중에 봐.

모두. — 응, 나중에 봐… (친근하게) 안녕히 계세요, 안드레시 씨!…

조르주는 그들을 배웅하고 무대로 돌아왔다.

조르주. — 참으로 골치 아픈 일이야…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정말로 골치 아파. 어쨌든 진주가 다시 내 것이 되었으니… 당신도 떠나지 않겠지?

안드레시. — 아니, 아니야… 할 일이 없나?

조르주. — 전혀 없어.

안드레시. — 안감도 벗기지 않나?

조르주. — 아니야... 나중에 할게.

안드레시. — 응. 그리고 어차피 왜 하겠나?

조르주. — 맞아, 그렇지? 내 진주가 여기 있어... 내 주머니 속에 있지.

안드레시. — 이번엔 절대 다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조르주가 억지웃음을 지었다. “맞아요.”

당드레시. “이번 일만 아니면, 당신도 상관없겠군요.”

조르주. “왜 그런 말을 하죠?”

당드레시. “당신의 주머니에는 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르주.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당드레시.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만져본 것은 타원형이었는데, 당신의 진주는 둥글잖아요. 오히려 기침약 알약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조르주. “네, 맞아요. 여기 있어요.”

당드레시. “당신은 참 착한 소년이군요, 조르주.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도둑입니다. 아니면 가족 중 두 사람 중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조르주. “아, 그건…”

당드레시.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일 테고, 당신은 이런 작은 꾀를 생각해냈군요. 당신은 정말 착한 소년입니다.”

조르주. “누구일까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둘 다 빗진 게 없어요. 도박도 하지 않고……. 베르토일 리가 없어요. 식탁을 서빙하는 사람이니까요. 조제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큰일도 아닌데……. 아, 갑자기…….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당드레지. “당황할 일이 아니야. 누군지 알아내야 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야……. 생각해보자……. 그 사촌……. 네 사촌을 확신하는구나?”

조르주. “제 사촌? 아, 네, 물론이죠! 우리 모두를 믿고 있어요!”

당드레지. “무슨 말인가?”

조르주. “네. 어쨌든 그에게 의심을 품을 이유는 없어요…….”

당드레지. “그때 보석함이 어디에 있었지? 우리가 진주를 보여줬을 때 말이야.”

조르주.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놓여 있었어요…….”

드랑드레시. “방에 들어갔을 때, 사촌은 어디에 있었소?”

조르주. “사촌이라니요? … 글썄요, 제 … 음 … 제 형제가 … 작은 책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장난을 치고 있었죠.”

드랑드레시. “장난?”

조르주. “네, 장난이었어요. 그리고 제 사촌은 … 제 사촌은 책장 근처에 있었죠.”

드랑드레시. “아! … 책장에 먼지가 끼어 있구려?”

조르주. “네, 창문을 열면 바로요. 그런데 아침에 닦아냈는데 말이에요.”

드랑드레시. “여종이 한 일인가?”

조르주. “아니요, 왜요? 집사요.”

드랑드레시. “잠깐, 네 사촌이 아주 작았나?”

조르주. “보통 키였어요. … 아, 그리고 더 이상 묻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그건 제 형제도, 사촌도 아니었어요. 제 약혼자였죠. 그리고 크리티코프 씨와 함께요.”

드랑드레지. — 누구와요? … 누구라고요? 아, 맞아요…

조르주. — 네, 그러니까요.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드랑드레지. — 물론이죠. 크리치코프 씨라고요…

조르주. — 뭐라고요?

드랑드레지. —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잘 지내나요?

조르주. —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약혼녀가 남자 친구를 찾아가는 일은 없잖아요. 제가 그녀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드랑드레지. — 아니요. 오히려 당신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약혼 기간 동안 다른 여성들을 만나면서 숨기고 있었다니…

조르주. — 다른 여성들?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분이 제 형제이자 사촌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드랑드레지. “그렇지만 반대쪽이 더 눈에 띄었어요. 바로 여성 손가락 자국이라는 게…”

그가 서재 선반을 가리켰다.

“우리가 방에 들어섰을 때, 화이트 로즈와 바이올렛 향이 나더군요. 그래서 바로 아셨죠. 장난이시란 걸요.”

조르주. “아!”

드랑드레지. “즉시 알았죠. 그리고 그 작은 보아 깃털. 분명히 여성이었고, 아주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그분도 책을 하나 가져가셨죠.”

조르주. “당신이라면 천재 탐정이었을 텐데!”

“그 책은 제가 빌려준 거예요.”

드랑드레시. “게다가 영어 책이었고, 저자 이름이 C로 시작하더군요.”

조르주. “뭐라고?”

드랑드레시. “글쎄요. 영어 책 중에서도 C로 시작하는 책들은 당신 계통에 많으니까요. 그리 어렵지 않은 추리죠.”

조르주. “맞아요.”

드랑데르시. “책장에 닿으려면 의자에 올라야 했으니까, 키가 작았다고 말한 거예요.”

조르주. “어떻게 아셨어요?”

드랑데르시. “쿠션 위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조르주. “아, 그렇군요.”

드랑데르시. “참 재미있네요. 신기하죠.”

조르주. “그런 걸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셨어요?”

드랑데르시. “글쎄요, 처음에는 관심 없었으니 몰랐죠. 하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둘러봤더니, 금세 알 수 있었어요.”

베르토가 들어온다. “게르샤르 씨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랑데르시. “이미요?”

조르주. “아, 반지 사건 때문이군요.” (전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네… 귀르샤르 씨 본인이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귀르샤르 씨. 반지 말씀이신가요?… 네.”

당드레지.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조르주. “네, 네.” (전화기에 대며) “네, 형사님, 찾았습니다. 네, 바닥에 떨어진 거였어요, 카펫 위에… 뭐라고요?… 만나자고요?… 아르센 뤼팽 때문이에요?… 다이어템 사건 말씀이신가요?… 여보세요… 장래 장인어른께서?… 네, 집에 있습니다… 끊지 마세요, 미스…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시나요?… 파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뤼팽이요?… 그가 파리에 있다니요?… 아니요,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당드레지. “오래 붙들고 두지는 않겠습니다.”

조르즈, 전화기를 들고. — “사십오 분 뒤면 완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님.”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세상에, 믿기 어렵군요. 제가 이제야 연극 속으로 들어간 셈이네요.”

앙드레시. — “왜 연극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바로 우리 주변의 일상이지. 부유층은 부를 지키려 하고, 가난한 이들은 부자가 되려 하죠. 그 수단만 놓고는 언제든 의견이 엇갈릴 뿐이니까.” “그 다이어템 사건이 대체 뭐야? 나는 신문 기사로만 그 사실을 알 뿐이야.”

조르주. — “그럼 형사님도 나만큼밖에 모르시는군요.”

앙드레시. — “왜 그런 말을 하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조르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불편하더군요. 오늘 아침부터 유난히도… 반지 때문이고, 뒤펽의 그 멍청한 사건 때문이고, 그리고 진주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내 친구 중 한 명이…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내 친구 중 한 명이… 네, 바로 그 점 이죠.”

당드레지. “네, 네.”

조르주. “이제 그만 잊고 싶어요. 하지만 자꾸만 생각이 나요. 제가 좀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당당시.”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의심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야말로 가장 괴로운 상태일 겁니다. 의심이란, 열렬한 호기심과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될까 봐의 두려움이 섞인 것이니까요. 이는 우리가 견디기 가장 어려운 감정의 상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보이고, 발 아래 땅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내 친구여. 의심에는 사악하고, 날카로우며, 어지러움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 이런 순간들은 심리학자에게는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지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에게로 향할 때는, 의심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확신은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불가능해요. 사랑하면 편협해지니까요. 당신의 적들은 당신에게 편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친구에게도 편협해도 되는 거죠. 말은 흔하지만, 우리는 종종 친구의 결점 때문에, 그들의 장점보다 더 크게 사랑하곤 하죠.”

게오르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진짜로 사랑할 만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친구가 도둑이라고 고백하러 오는 거죠. 당신처럼 저에게 목숨을 건 은혜를 베풀어준 친구요. 그 순간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치겠지 만요. 그 충격이 가시면 저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 테니까요. 네, 손을 내밀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렸다.

“보시죠, 의심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드랑드레시가 일어나 장갑을 낀다.

“증거만이 참을 수 없는 거죠.”

조르주가 묻는다.

“가시나요?”

“게르샤르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드랑드레시가 잠시 멈추더니 그를凝視한다.

“조르주!”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하죠. 끔찍합니다. 모욕적입니다. 심지어 악랄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정말 이유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방금 전부터 이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드랑드레시님, 당신 안에 수수께끼 같은 영혼이 있군요. 어둡고, 불안하게 만드는데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리고…”

“말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조르주. “그리고요,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당신 쪽은 모든 게 신비롭기만 하죠. 우리 만남 자체도, 성당에서 벌어진 일도…… 그리고 또……”

앙드레시. “말해 봐.”

조르주. “말하다니…… 내가 적절한 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보 같은 소리일 테니, 당신께서 배를 잡고 웃으실 거예요. 그리고 뒤편…… 그렇죠, 뒤편…… 음, 뒤편…… 우리는 그를 젊고 우아하며 매

너가 좋은 남자로 상상하죠. 다르벨의 기억은…… 당신처럼 불안하고, 멀리 느껴지는 존재…… 당신과 조금 닮았어요. 좀 이상하죠? 당신도 웃으실 텐데…… 아, 웃지 않으세요?”

앙드레시. “아니오.”

조르주. “웃지 않으세요?”

앙드레시. “아니오.”

조르주. “앙드레시?”

앙드레시. “무슨 말씀이요?”

조르주. “앙드레시라니, 정말일까요?”

앙드레시. “그렇습니다.”

“조르주. — 당드레지, 제게 등짝을 들이밀고 계시는군요. 웃고 계신다니, 혹시 … 혹시 …”

“당드레지. — 툭 내뺨어라. 입이 타들어갈 텐데.”

“조르주. — 혹시 … 아르센 뤼팽이십니까?”

“당드레지. — 그래.”

“조르주. — 오!”

“당드레지. — 자, 손이나 잡아라. (잠시 멈춤.) 당신, 안도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군. 보자, 나는 솔직하게 말했지. 남에게 한 적 없는 말을, 내가 도둑이고 어떤 도둑인지까지. 하지만 나는 당신 목숨을 구했고, 의심에서 벗겨주었잖아. 자, 손이나 잡아.”

손을 내미는 조르주. — “자, 그래요! 맞습니다!”

당황한 당드레지. — “진짜로?”

손을 여전히 내민 채 조르주. — “네 … 당신께선 제 목숨을 구해 주셨어요. 작별 인사를 할 때쯤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혼잣말하는 당드레지. — “설마.”

조르주는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

“자, 이제 됐네.”

그는 웃음을 터뜨리는 드랑드레시에게 물었다.

“왜 그러는 거야?”

드랑드레시가 말했다.

“대단하군! 정말 놀라워!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다니…… 그리고 그걸 진짜로 믿었지. 너도 믿었잖아.”

조르주가 물었다.

“뭐라고?”

드랑드레시가 다시 말했다.

“참으로 경이롭군! 내가 정말 멋지게 연기했어. 하지만 정말 놀라워…… 아, 불쌍한 조르주야.”

그는 몸을 비틀며 웃었다.

“불쌍한 조르주!”

조르주가 말했다.

“재미있는 일이 아니야.”

드랑드레시가 말했다.

“그리고 상심한 모양이군. 아, 내가 이 이야기를 유니온에 가져가면 어떨까?”

조르주가 말했다.

“아니, 안 돼. 소용없어.”

드랑드레시가 말했다.

“내가 참아주지 않을게. 너무 재미있어! 아르센 뤼팽인 척할 수 있었다니!……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르주가 말했다.

“내가 바보처럼 굴었어.”

“당신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게다가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쉽게 속고, 쉽게 넘어가고, 순진하게 행동하다니… 진열장 속에 넣어두고 구경거리로 삼아야 할 정도죠.”

“저는 감옥에 갇혀야 마땅한 인간이죠,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말이죠. 아, 정말 재미있군요. 그리고 게르샤르에 대한 당신의 말, ‘당신은 그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라는 그 문장… 제 평생, 천 년을 산다 해도 그 말투를 잊지 못할 겁니다. 인생이 슬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은 방금 전의 당신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우습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웃고 계시지만… 그 웃음은 저를 원망하는 듯한 웃음이에요.”

“나요?”

“조르주.”

“네,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신에게 그 권리가 있죠. 모욕적인 의심이라니…… 당신이라면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시비를 걸기 위해 증인

을 세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당신에게 모든 권리가 있는 거죠.
마땅히 그래야 할 일입니다.”

“드랑드레시.”

“오!”

“네, 마땅히 그래야 해요. 아, 나는 오늘 운이 없군요. 당신의 우정을
잃어버렸네요.”

드랑드레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보야!”

“뭐라고요?”

“우리 서로 ‘너’로 부르자고.”

“드랑드레시!”

“오늘부터야 비로소 너를 친구로 여기고, 너를 존경하며, 너와 잘 맞
는다고 생각한 거야.”

“너…… 너, 나를 장난감으로 여기는 건가?”

“드랑데르시.”

“내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나? 도대체 말이야, 샤동-제로. 공화정 의
원의 후손이면서, 공학원의 회원인 제롬 샤동-제로의 아들, 좀 과시적

인 외교관, 본질과 전통을 중시하는 부르주아. 스캔들을 두려워하고, 도둑질을 혐오하며, 품위 있고 도덕적이며 관례적인 것 외에는 모두 거부감으로 여기며 자랐지. 바로 그 너, 조르주 샤동-제로!”

“네가 친구 중 한 명이 마지막이자 최고의 도적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있어. 그런데도 너는 그 친구를 충분히 사랑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본능적인 동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친구를 용서하고, 변명해 주지. 그 놀라운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아, 친애하는 조르주. 너는 내게 목숨을 졌지. 하지만 이제 오 분 동안은 서로 상환했어.”

조르주. “너는 내 목을 노렸군.”

“당드레지.”

“조금요.”

“게오르주.” “고백해 봐. 넌 일부러 그런 거잖아. 내가 올라오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사나우면서도 장난기 어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게 재미였지. 그런 식의 과시 자체가 너한테 즐거운 일이야.”

“당드레지.” “음, 사실 재미있긴 하지. 하지만 자, 이제 기뻐하지 않겠어?”

“게오르주.” “그렇죠.”

“당드레지.” “우리가 이제야,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정한 친구라고 느끼지 않아? 앞으로 영원히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새롭고도 강건하며 건강한 느낌을?”

“게오르주.” “네가 말이 맞아. 그래, 오늘 밤에 할 일이 뭐야?”

“당드레지.” “오늘 밤? 딱히 정해진 건 없어.”

조르주. “자, 오늘 저녁 장인어른 댁에서 식사하자.”

당드레지 백작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꼭 데려갈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잖아. 몇 년 전, 네가 떠나기 전의 그 젊은 당드레지 백작은 좀 난폭했어. 여자를 위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지나치게 과시하는 바람에 그분을 많이 당황하게 했지.”

“인도에서는 내 소개도 제대로 못 시켰잖아. 내 약혼자 아버님께.”

“괜찮아. 다 내가 책임질게. 꼭 따라와. 응, 꼭 가야 해.”

당드레지. “좋아.”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럼, 이번엔 손 좀 잡아주나?”

조르주. “아, 친구야! …물론이지, 진심으로.”

당드레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놈.”

베르토가 들어왔다.

“게르샤르 씨가 오셨습니다.”

조르주. “아니, 웃지 마. 저 앞에서 나 바보처럼 보이게 하지 마.”

그는 베르토에게 말했다.

“들어보시오.”

그리고 당드레지에게 다시 말했다.

“아니, 이제 웃지 마, 친구.”

“당드레지.”

“아, 감시자답게 단정하군.”

조르주. “형사님, 직접 찾아오시다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름 아니라 다이어템 사건 말씀이시죠?” (당드레지에게) “알고 계시죠? 이분은 보안국 형사 게르샤르 씨, 그리고 당드레지 백작님.”

게르샤르. “아, 그분! 마침 그대 댁에 가려고 했소.”

당드레지. “아?”

게르샤르. “당신의 비서가 보내온 요청 때문이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샤르나세 공작의 조카, 전 대사였던 당드레지 백작의 아들이라니. 나는 그대 가족과 항상 매우 우호적이고 존경 어린 관계를 유지해 왔소. 그래서 내가 직접 가져가려다 보니, 이렇게 만나게 되었군.” (그는 봉투를 건넸다.)

“당데리 씨. 감사합니다, 게르샤르 씨. 직접 손까지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게 해 주셔서요. 만약 여기서 손잡을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편지로라도 그 감사를 전했을 테니까요. 곧 뵙기를 바랍니다.”

“당데리 백작...”

조르주가 당데리를 배웅하며 말했다.

“자, 저녁 먹으러 내 집으로 와라. 그런데 게르샤르가 너한테 뭐라고 건넸더냐?”

“비밀 경로요!”